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김남길

비담 뛰어넘고 싶다

한가인

CF이미지 깨고 싶다

드라마 '나쁜남자'서 운명적 사랑

야망에 온몸 내던진 남자 "다른 모습 보여주려 고민"

신분상승 꿈꾸는 속물 여자 "3년만의 드라마 연기 긴장"

한가인과 김남길이 한 작품에서 만났다.

26일 첫 방송 되는 SBS 드라마 '나쁜남자'에서 단아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한가인은 신분 상승을 꿈꾸는 속물적인 여자 재인으로 등장, 김남길과 운명적 사랑을 나눈다.

MBC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비담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김남길은 섣부른 변화를 택하지 않았다. 그는'나쁜남자'에서 기존의 비담 이미지를 이어가며 야망에 온몸을 내맡긴 건욱을 연기한다.

제작발표회에서 김남길은 "비담을 뛰어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운을 뗀 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너무 많이 벗어나 실수라도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까 봐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그가 맡은 건욱은 어린 시절 해신그룹의 후계자로 입양됐다가 버려진 상처로 해신그룹에 복수를 꿈꾼다. 액션스쿨 스턴트맨으로 남성적인 외모와 유창한 외국어 실력까지 겸비한 그는 자신의 매력을 앞세워 해신그룹 회장의 딸들에게 접근한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매력적인 남성 캐릭터라는 점에서 선덕여왕의 비담을 연상케 한다.

김남길은 "선덕여왕 이후 당분간 드라마를 안 할 생각이었다"며 "비담을 뛰어넘을 캐릭터는 만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망설이던 그는 연출자 이형민 감독을 만나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

"감독님과 상의한 결과 바뀔 수 없다면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좀 더 깊은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변화를 택하지는 않았지만 부담감은 컸다.

"왜 건욱이 나쁜 남자여야 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요.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멋있게 보이려 하기보다는 연기에 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영화 같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여유를 갖고 대본을 풀어가려 했지만 방송날짜가 갑자기 앞당겨지는 바람에 촬영은 정신없이 진행되고 있다.

팍팍한 촬영일정 속에서도 그는 연기에 대한 고민을 쉬지 않는다.

"뭘해도 선덕여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숙하다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한가인은 2007년 SBS '마녀유희' 이후 3년 만에 출연하는 이 드라마에서 상류사회 진입을 위해 대그룹의 후계자와 결혼을 계획하는 여성 캐릭터를 맡았다.

평범한 집안의 딸로 명문대를 나온 재인은 신분 상승을 꿈꾸며 해신그룹의 아들 태성(김재욱)에게 접근하지만 건욱을 태성으로 오해하고 그와 얽히게 된다.

"대본을 보니 이전에 했던 캐릭터와 차이가 커서 오히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F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깨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3년 만에 하는 드라마 연기라 부담감이 크다.

한가인은 이날 제작발표회에서도 "3년 만이라 걱정이 많이 돼서 잠을 잘 못 잔다"면서 "처음 촬영할 때는 방송날짜가 많이 남아서 괜찮았는데 방송일이 다가오니까 부담이 점점 커진다"고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다.

상대역인 김남길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편하게 잘 촬영하고 있다"며 "남길씨가 출연한다는 소식도 출연 결심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남길은 한가인에 대해 "가인 씨를 현장에서는 아줌마라고 부른다"며 "기존 이미지와 달리 수더분하고 신선한 느낌이 있다"고 전했다.

제작발표회 내내 수줍은 모습을 보이던 "나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대본이 나오면 언제든지 연기하고 싶다"고 연기 욕심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비, 7월 일본 공연

요요기체육관서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28)가 다시 일본 무대에 오른다.

지난달 도쿄 국립요요기체육관에서 공연한 비는 7월17~18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비, 러브 투어 2010'이라는 타이틀로 연이어 공연을 개최한다.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3만석 규모로 열릴 이번 공연에서 비는 신보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으로 활동중인 만큼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률〈왼쪽〉과 이상순

음반 '데이 오프' 발표 김동률·이상순

"볕이 좋은날 벤치서 눈 감고 광합성 할 때 듣기좋은 음악"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롤러코스트의 기타리스트 이상순이 '베란다 프로젝트'(Verandah Project) 를 만들어 음반 '데이 오프'(Day off) 를 발표했다.

신사동 가로수길의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여행 갈 때 혹은 볕이 좋은 날 공항 벤치에서 눈을 감고 광합성할 때 듣기 좋은 음악"이라고 음반을 소개했다.

"거창한 이름을 짓고 싶지 않았어요. 베란다 하면 사람에 따라 멋진 공간, 빨래를 말리는 공간이겠죠. 휴식이 되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의미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둘 다 베란다가 없는 집에서 살지만. 하하."(김동률· 이하 김)

두 사람의 음악 행보에서도 이번 음반은 일상 탈출이자, 휴식 같은 의미다.

김동률은 "지금껏 내 솔로 음반은 좋게 말해 고뇌, 나쁘게 말해 청승 떠는 노래들이 많아 기분 좋을 때는 듣기 힘들었다"며 "이번 음반은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여유가 담긴 소박한 음악들이다. 솔로 음반이 화자가 1인칭인 일기라면, 이 음반은 둘의 속깊은 대화를 엿듣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순도 "지금껏 밴드 음악을 주로 했는데 롤러코스터 때와는 다른 음악을 해보고 싶었다"며 "동률 씨와는 2004년 사진동아리를 통해 친해졌는데 이 사람과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나 건반으로 곡을 쓰는 김동률과 기타로 곡을 쓰는 이상순 사이의 교집합이 필요했을 터.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관심있던 보사노바, 라틴, 포크 계열 음악에서 접점을 찾았다고 했다.

타이틀곡 '바이크 라이딩'(Bike Riding) 은 암스테르담에서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놀러다니던 중 나온 곡.

김동률은 "가사를 쓸 때의 나도 100% 내가 아니었다"며 "일부러 사랑 이야기를 배제하고 일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연령대가 공감하는 가사를 쓰려고 했다. 지나치게 멋 부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고 말했다.

데뷔 시절 그룹인 전람회, 이적과 만든 그룹 카니발로 활동한 적 있는 김동률은 오랜만의 팀 작업이어서 더욱 새로웠다고 했다. 카니발 시절 곡 작업이 분업 체계였다면 이번에는 암스테르담 합숙을 통한 결과물이었기에 밴드의 일원이 된 듯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음악에서 30대 후반 싱글남의 '찌질함'이 묻어난대요. 하하하." /연합뉴스